

특집 : 학교보건정책의 현재와 미래

청소년의 성 고민 해결

정연강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들어가는 말

성이란 인간의 근본문제이다.

인간은 태어나고, 존속하고, 생활하고, 혈통을 잊게 하면서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는 인류존속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성을 매개로 생명의 형태와 인성간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가족과 사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성의 인격체는 나이와 성숙 정도와 관계 없이 존귀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적 소유권과 권리가 영원하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적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의 성은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온 순결이나 성 윤리로 단순하게 취급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성적 성숙도 또한 가속화되어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성 환경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구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갖추지 못한 채 탈선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혼란을 초래하였고 청소년들의 인식구조에 커다란 변화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논리적 확립과 과학적인 지식을 포괄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고민은 상상 외로 큰 것에 비하여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우리사회는 성 문제를 금기시하거나 죄악시하여 그릇된 지식을 심어주고 성에 대한 타부를 가지게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생의 주기에 따른 성교육이 시행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을 행하여왔다. 이는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의 필요성, 지식, 태도에 국한된 것이 있으며 고등학생의 성 경험, 청소년의 성 문제 등은 다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태는 성의 지식 수준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반면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문화와 실생활은 청소년의 성 고민을 더욱 더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성 태도, 청소년의 성 고민이 무엇인가를 근거하여 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하며 인간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인적 교육으로서 성교육이 요구되는 만큼 중학생의 성 고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하다.

본 말

선행 연구를 조사해본 결과,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식, 태도, 경험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된 바 있으나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고민은 별로 찾기 어려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녀 각 150명을 편의 추출하여 총 300명 중 273명이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고민 상담은 60.4%, 성 고민 상담 60.4%로 친구에게가 가장 많았으며, 선생님의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는 대부분의 고민 상담을 선생님이 아닌 주위 또래의 친구들과 서로 상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응답자 중에서 주로 상담을 의뢰하는 선생님의 경우는 선행연구에는 양호교사가 40.3%, 담임 30.5% 순이나, 상담교사의 경우 14.6%로 낮았다. 성 지식 습득의 경우도 선행연구와 같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34.4%, 책 혹은 TV 등 대중매체 28.7%로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나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성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N	%
성별	남	133	(48.7)
	여	140	(51.3)
		273	(100.0)
학교	중학교	90	(33.0)
	인문계고등학교	83	(30.4)
	실업계고등학교	49	(17.9)
	특수목적고등학교	51	(18.7)
		273	(100.0)
경제상태	잘산다고 생각한다.	9	(3.3)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55	(20.2)
	중간정도라고 생각한다.	147	(54.1)
	어렵지만 괜찮다고 생각한다.	55	(20.2)
	아주 어렵다고 생각한다.	6	(2.2)
		273	(100.0)
학교성적	상위 1/3	82	(30.2)
	중간	127	(46.9)
	하위 1/3	62	(22.9)
		273	(100.0)
일반고민 상담	부모님	55	(20.4)
	형제자매	17	(6.3)
	친구	163	(60.4)
	선생님	6	(2.2)
	기타	18	(6.7)
	혼자	11	(4.1)
		273	(100.0)
성교민 상담	부모님	29	(10.9)
	형제자매	17	(6.4)
	친구	162	(60.9)
	선생님	1	(0.4)
	기타	42	(15.8)
	혼자	15	(5.6)
		273	(100.0)
주 상담 선생님	담임선생님	25	(30.5)
	양호선생님	33	(40.3)
	상담교사	12	(14.6)
	기타(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 등)	12	(14.6)
		82	(100.0)
성지식	학교에서의 시청각 교육을 비롯한 교육	46	(18.1)
	성교육 인터넷 사이트나 구강영화	13	(5.1)
	책,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73	(28.7)
	성인음란사이트나 포르노 영화	25	(9.8)
	부모님이나 형제	10	(3.9)
	친구들 경험담 등 이야기나 소문	87	(34.4)
		254	(100.0)

특히 최근 대두되어 있는 동성애에 대한 질문에 52.6%가 들어본 적이 없고 43.8%가 알고 있으며 3.6%만이 전혀 모른다고 한 것을 볼 때 지금까지의 성교육 내용에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1.6%가 동성애를 하고 있으며 유혹을 받은 학생도 41.2%인 것을 볼 때 시대의 변화와 성문화의 변화시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동성애 인지

구분	내용	N	%
동성애에 대해	전혀 모른다.	9	(3.6)
	들어본 적 있다.	133	(52.6)
	알고 있다.	111	(43.8)
동성애에 대한 경험		253	(100.0)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10	(4.1)
	동성애를 하고 있다.	4	(1.6)
	동성애의 경험이 없다.	229	(94.3)
동성애에 대한 생각		243	(100.0)
	이성교제와 비슷하다.	66	(29.2)
	사회적(도덕적, 윤리적)문제가 생긴다.	78	(34.5)
	나쁜 관계이다.	82	(36.3)
		226	(100.0)

본 조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신체변화에 대한 고민, 이성교제 및 성접촉, 에이즈 및 성병, 임신 및 유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각각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4 참조). 신체의 변화에 대한 고민 중에서 남학생의 경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53.8%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 나의 신체적 변화가 정상적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42.4%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여학생의 경우 신체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자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변화에 대해 호기심과 변화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읽을 수 있었다. 이성교제나 성접촉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62.7%가, 여학생의 경우 52.9%가 좋아하거나 사귀는 남자(여자) 친구를 어떻게 잘 사귈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성과의 교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임신 및 유산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아기를 낳아야 할지, 인공유산을 해야 할지의 문제에 43.3%가 응답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 임신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위사람의 나에 대한 반응을 34.9%로 응답하므로 역시 새로운 생명의 존엄성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이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성교육 프로그램은 연령과 성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정규 교과과정에서 실시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표 3. 남학생의 성고민

구분	내용	N	%
신체변화에 대한 고민	나의 신체적 변화가 정상적인지의 문제	23	(16.1)
	다른 친구들도 나의 변화와 같을까?	19	(13.3)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더 일어날까?	77	(53.8)
	자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10	(7.0)
	영화나 인터넷에 나온 성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14	(9.8)
		143	(100.0)
이성교제 및 성접촉	좋아하거나 사귀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사귈 수 있는지	52	(62.7)
	여자친구와 신체적 접촉여부와 정도의 문제	16	(19.3)
	여자친구와 성관계 여부와 성관계후 임신여부	6	(7.2)
	성관계시 피임도구 사용에 대한 문제	5	(6.0)
	피임도구 및 바업의 종류 및 사용법	4	(4.8)
		83	(100.0)
에이즈 및 성병	어느정도의 접촉으로 성병이 옮을 지에 대한 문제	16	(22.9)
	성병이나 에이즈의 증상	13	(18.6)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의 대처법	18	(25.6)
	누구에게 상담을 하면 좋을 지의 문제	23	(32.9)
			70 (100.0)
임신 및 유산과 관련된 문제	여자친구가 임신할 경우의 신체적 변화	6	(25.0)
	아기를 낳아야 할지, 인공유산을 해야 할지의 문제	24	(43.6)
	임신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위사람의 나에 대한 반응	2	(3.6)
	인공유산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23	(41.8)
		56 (100.0)	

남녀 학생들의 성 경험을 보면 남학생 12.8%, 여학생 5.1%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학생들 중 14.2%에 해당되며, 이는 통계적으로 $\chi^2 = 8.683$, $p=0.034$ 로 유의하였다(표 5 참조). 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고, 성 경험의 시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한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표피적인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표 4. 여학생의 성고민

구분	내용	N	%
신체변화에 대한 고민	나의 신체적 변화가 정상적인지에 대한 문제	42	(42.4)
	다른 친구들은 어떨지에 대한 문제	38	(38.4)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더 일어날지에 대한 궁금함	19	(19.2)
		89	(100.0)
이성교제 및 성접촉	좋아하거나 사귀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사귈 수 있는지	55	(52.9)
	남자친구와 신체적 접촉여부와 정도 및 거절방법의 문제	27	(26.0)
	남자친구와 성관계 여부와 성관계후 임신여부	8	(7.7)
	성관계시 피임도구 사용에 대한 문제	14	(13.4)
		99	(100.0)
에이즈 및 성병	어느정도의 접촉으로 성병이 옮을지에 대한 문제	45	(50.0)
	성병이나 에이즈의 증상	9	(10.0)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의 대처법	29	(32.2)
	누구에게 상담을 하면 좋을 지의 문제	7	(7.8)
		99	(100.0)
임신과 유산과 관련된 문제	임신이 될 경우의 증상	12	(14.5)
	여자친구가 임신할 경우의 신체적 변화	8	(9.6)
	남자친구가 임신을 알 경우, 반응과 관계지속 여부 불안	11	(13.3)
	임신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위사람의 나에 대한 반응	29	(34.9)
	아기를 낳아야 할지, 인공유산을 해야 할 지의 문제	17	(20.5)
	인공유산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4	(4.8)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문제	2	(2.4)
		261	(100.0)
성폭력 및 강간	성폭력이나 강간의 범위 및 정의	12	(20.0)
	성폭력이나 강간 예방법	8	(13.3)
	성폭력이나 강간 후 임신여부 및 후유증	11	(18.4)
	성폭력 및 강간 후 바람직한 대처방법	29	(48.3)
		99	(100.0)

표 5. 성별에 따른 성경험 여부

유무	남학생(N%)	여학생(N%)	χ^2 test (p)
있음	17(12.8)	7(5.1)	
없음	116(81.2)	129(94.9)	8.683(.034)
총	133(100.0)	136(100.0)	

남녀 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볼 때, 남학생 30.7%, 여학생 38.4%에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51.8%가 동성애가 나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 41.1%가 이성교제와 유사하다고 응답해 남녀 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름을 볼 수 있었고, 여학생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빠름을 추측 할 수 있다(표 6 참조). 이는 $\chi^2 = 30.216$, $p=0.000$ 으로 남녀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동성애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6. 성별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인식

항목	남학생		여학생		χ^2 test (p)
	N	%	N	%	
이성교제와 비슷하다.	20	17.5	46	41.1	30.216 (.000)
사회적(윤리적, 도덕적)문제가 생긴다	35	30.7	43	38.4	
동성애는 나쁜 관계이다.	59	51.8	23	20.5	
	55	48.2	89	79.5	

성별에 따라 성 고민 해결방법으로 남학생의 경우 29.4%가, 여학생의 경우 28.5%의 학생들이 성에 대해 많이 알고 있거나 상담을 잘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 상담전화나 상담 센터의 이용률도 28.5%로 높았다. 반면에 학교 보건교육이나 성교육에 대해서는 남학생 10.5%, 여학생 9.2%로 나타나 성 고민이 생겼을 때, 이전에 받았었던 성교육이나 보건교육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표 7 참조).

표 7. 성고민 해결방법

항목	남학생		여학생		χ^2 test (p)
	N	%	N	%	
인터넷이나 컴퓨터 교육자료 프로그램, 책자 등으로 혼자	11	10.5	13	10.0	
성에 대해 많이 알고 있거나 상담을 잘하는 친구와 이야기	31	29.4	37	28.5	15.612 (.029)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담	26	24.8	31	23.8	
학교 보건교육이나 성교육	11	10.5	12	9.2	
청소년 상담전화나 상담센터	26	24.8	37	28.5	
	105	100.0	130	100.0	

맺는 말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의 성 고민을 살펴볼 때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시간이나 초중고 성교육지침, 교육부지정 성교육 시범학교 운영, 한국 학교보건교육 연구회의 포괄적 성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연구,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 순결운동본부 및 교육계의 학술대회 등 전국적으로 각계 각종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비하여 단편적인 면임을 추측할 수 있어 현실적인 성

문화정착이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어느 성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에서 성교육의 부족한 점으로 첫째 시간부족, 둘째 기초지식부족(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남녀 학생을 서로 나누어 하고 학습(툭터놓고 이야기 할 수 없고 질문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시험문제를 맞추기 위한 학습이라고 볼 때,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영역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서울특별시 교육청(1996). 성교육지침(초. 중. 고등학교)
- 김상원(1991). 청소년 순결교육, 그 대안을 찾아서 III. 청소년 성문제 실태와 바람직한 성교육 방안, 한국 청소년 순결토론 본부. 제3집 P51-72
- 한성현, 이경선, 이선희(2000). 서울지역 일부 고등학생들의 성행태 및 관련요인 분석 보건교육, 건강증진 학회 및 제17권 P19-39
- 김미주(1996). 포괄적 성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교육 연구회 서울시지회 회보. P15-25
- 박은혜, 한유정, 윤현숙(1996), 남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1) P99-108.
- 김상옥, 남길현(1992).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행태 조사. 한국학교 보건학회지 P42-65
- 봉립중학교(2000). 건정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성교육의 실제.